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2022. 8. 17.(수) – 9. 30.(금)

학생안전지도 그리기

참가대상
-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팀별 참가 (지도교사 1명 필수 포함, 4인 이상)
- 일반인 팀별 참가(4명 이상)

※ 교원의 경우 학생 대상의 지도교사로만 참여 가능

시상내역

상격	수상인원(팀)				
	유	초	중	고	일반
대 상 (교육부장관상)	1	1	1	1	1
	각 100만원				
최우수상 (중앙회이사장상)	1	1	1	1	1
	각 50만원				
우수상 (중앙회이사장상)	2	2	2	2	2
	각 30만원				

학생안전활동 사용자 창작 영상콘텐츠(숏폼)

참가대상
-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팀별 참가 (지도교사 1명 필수 포함, 4인 이상)
- 일반인 팀별 참가(4명 이상)

※ 교원의 경우 학생 대상의 지도교사로만 참여 가능

시상내역

상격	수상인원(팀)				
	유	초	중	고	일반
대 상 (교육부장관상)	1	1	1	1	1
	각 100만원				
최우수상 (중앙회이사장상)	1	1	1	1	1
	각 50만원				
우수상 (중앙회이사장상)	2	2	2	2	2
	각 30만원				

학생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참가대상
-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재외 한국학교 포함)에 재직 중인 교직원

※ 개인 또는 팀별(2~3인)참여 가능

시상내역

상격	수상인원(팀)				
	유	초	중	고	
대 상 (교육부장관상)	1	1	1	1	
	각 100만원				
최우수상 (중앙회이사장상)	1	1	1	1	
	각 50만원				
우수상 (중앙회이사장상)	2	2	2	2	
	각 30만원				

|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www.ssifcontest.com**를 참조하세요. |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09 vol.482
2022 SEPTEMBER

행복한 교육

02 꿈이 영그는 현장
내가 그린 친환경 여름방학
"탄소중립 함께 실천해요~"

06 네 꿈을 펼쳐라
강원 양양중학교 서핑동아리 '써사모'
우리의 놀이터는 바다, 함께 즐기고 아끼자!

34 교육웹툰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부터 시작

40 교육포커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교육부

행복한 교육

09

vol.482 2022 SEPTEMBER

COVER STORY

양양중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 서핑학교의 도움을 받아 낙산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다. 서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서핑보드와 구명수트를 무료로 빌려주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사를 지원한다. 서핑 이론부터 지상에서 중심 잡기, 서핑 주요 동작 익히기, 응급구조까지 익힌 학생들이 바닷가에서 즐겁게 서핑을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발행일 2022년 9월 1일
발행처 교육부
편집인 대변인 김천홍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신광수
사무관 이인숙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안광석, 이경화
사 진 김경수, 박시홍,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획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16
온전한 학교의 일상 회복, 학교 안전을 점검하다

20
안전한 등굣길, 안전교육이 최고의 보약

24
다시 살아나는 생존수영, 어린이 물놀이 안전 책임진다!

28
학교가 가장 안전한 올타리가 되어야 한다

02 **꿈이 영그는 현장**
내가 그린 친환경 방학생활 "탄소중립을 함께 실천해요~"

06 **네 꿈을 펼쳐라**
강원 양양중학교 서핑동아리 '써사모'
우리의 놀이터는 바다, 함께 즐기고 아끼자!

10 **에듀피플**
최병규 한마음교육봉사단장(KAIST 명예교수)
"다문화가정 교육 멘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립니다"

30 **정책을 말하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34 **교육웹툰**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부터 시작

36 **교육자치시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프로젝트'
'책임지도제'로 촘촘한 학습 안전망 구축

39 **이달의 교육뉴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최초 마련 外

40 **교육포커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44 **진로직업인**
지식재산 전문가_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경민 대표변리사
"늘 새로운 기술을 먼저 만나는 '행복한' 직업이죠"

48 **체험! 진로현장**
첨단 디지털 시대 '혁신' 원동력-지식재산 전문가

50 **일상의 쉼표**
파란 도시 부산을 재조명한 세 문화마을

54 **교실혁명**
모두가 완성을 경험하는 미술 수업

58 **혼자보기 아까워서**
감사한 내 하루 外

60 **명예기자 리포트**
한국어 교실로 오세요(Korean Class Warming) 外

64 **독자마당**

내가 그린 친환경 방학생활
“탄소중립을 함께 실천해요~”

취재·사진 _ 문승욱 명예기자

1 2 3 4 기후변화와 생태계를 주제로 한 환경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 “앞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거예요.”

“환경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환경이 더 궁금해졌어요. 환경캠프를 신청한 이유이기도 해요. 환경캠프에 참여하면서 우리 때문에 환경이 망가지고 오염되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닐 생각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거든요.”

지난 8월 3일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된 ‘환경방학 프로젝트(이하 환경캠프)’에 참여한 송정초 김도윤(5학년) 학생은 1박 2일간의 체험을 통해 느낀 소감을 진지하게 들려주었다.

신나는 여름방학, 내장산에서 환경을 배우다

이번에 열린 환경캠프는 교육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두 부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에는 초등 5~6학년은 대면으로, 중학생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대면행사에는 경기 광주송정초, 석곶초, 대구내당초, 전북 군산회현초, 전주동신초, 광주 산정초, 그리고 익산 환경동아리 반딧구링툰 등 1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다.

행사를 진행한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우희진 씨는 “2019년에는 권역별로 운영했고,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로 대면으로 운영하지 못하다 올해 우선 한 곳에서만이라도 대면으로 진행해보자는 생각에 온라인 신청을 받아 8월 1일부터 3일까지 환경캠프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오랜만의 대면행사라 학생들의 열의가 높았고 활동하는 동안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집중하는 모습에 강사님이나 대학생 멘토들도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라고 캠프 분위기를 전했다.

1박 2일간 2회에 걸쳐 진행된 환경캠프는 기후변화 및 생태계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알아보고, 그린볼을 굴리며 지구온난화를 체험해 보는 ‘그린볼로 지구 온도를 낮춰라’를 비롯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플러스(+) 활동과 마이너스(-) 활동을 알아보는 ‘그린 행동가의 실천 방법 알아보기’, 대체에너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활동도 마련됐다.

장소가 내장산생태탐방원이라는 장점을 활용한 '솔티옛길 트래킹 및 환경보물찾기'와 '별 헤는 밤' 프로그램도 학생들에게는 이색 체험이었다.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솔티옛길을 걸으며 자연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연물 빙고게임을 진행했으며, 강당에 누워 별자리 및 내장산에서 볼 수 있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 밖에도 환경영화를 시청하고 마지막 활동으로 캠프에서 알게 된 내용으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정초 석지우(5학년) 학생은 "모든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다. 1박 2일 동안 게임도 하고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먼저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라고 말했다.

선서!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합니다"

환경방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2일에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환경방학 선포식을 열고 초등학생들에게 환경 마술쇼, 이야기 콘서트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8월 9~10일에는 2회에 걸쳐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환경캠프가 열렸다.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정전을 막기 위해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에 대한 퀴즈 풀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구의 에너지 안위를 지켜내는 '기후위기-에너지 방탈출게임'을 비롯해 친환경 행동가의 실천방법 알아보기, <지구를 항해하는 초록배를 탑니다>의 저자 김연식 작가와의 만남과 환경 관련 직업에 대한 진로멘토링 등이 이뤄졌다.

5

6

7

8

5 내가 GREEN 환경방학 선포식
6 내장산 산책길에 만난 곤충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
7 솔티옛길 트래킹 "모두 함께하면 넘어지지 않아~"
8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는 아이들
9 그린볼로 지구 온도를 낮추는 게임
10 환경퀴즈를 푸는 아이들
11 자연은 아이들의 놀이터

9

10

11

강원 양양중학교 서핑동아리
'써사모(써핑을 사랑하는 모임)'

우리의 놀이터는 바다, 함께 즐기고 아끼자!

1 서핑동아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낙산해수욕장을 찾았다.

"샤카" "샤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펴고 나머지 손가락을 접은 채로 빠르게 흔들면서 인사를 나누는 양양중학교(교장 이영진) 써사모 학생들.
'샤카'는 하와이에서 유래한 서퍼들의 인사로 '알로하'와 같은 의미라고 한다. '오늘 파도 좋아.' '걱정마.' '아주 좋아.' 긍정의 의미만 가득한 인사다. 언제 어디서든 서퍼들은 서로에게 '샤카'라고 인사한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샤카를 외치는 학생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글_ 편집실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으로 서핑동아리 탄생

"얘들아, 서핑해 본 친구들 있니?"
처음 양양중학교에 부임한 안세진 교사는 서핑을 통해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서핑의 고장, 양양'이니까 편하게 던진 질문이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이 서핑을 접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안 교사는 '양양행복교육지구-학생자율동아리(우리끼리)' 지원 사업을 활용해 서핑동아리 예산을 확보했고 학교 특강을 통해 인연이 닿은 양양서핑학교(서프시티협동조합) 김나리 대표와 의기투합했다.
김 대표는 양양중학교 내 서핑동아리 창립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학교 동아리 예산만으로는 14명이나 되는 부원들의 서핑 강습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서핑학교에서는 서핑보드와 구명수트를 무료로 빌려주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사를 지원한다. 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계획보다 활동이 많이 늦어졌지만, 올해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륜바이크를 타고 해안을 순찰하던 양양서핑학교 이승대 교장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 교장은 "외지인에 밀려서 바닷가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이 서핑하면 부모님들의 인식도 달라진다. 외지인들과 지역민의 조화를 끌어내고 유대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핑학교에서는 써사모 동아리 부원들이 동아리 시간 외에도 언제든 와서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 김나리 대표는 "양양으로 귀촌한 뒤 청소년 무료강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역 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라며 "봉사와 기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첫발을 내디딘 써사모는 실내에서 서핑 기초이론부터 배웠다. 서핑 기본 용어 및 서핑의 역사에 대한 이해, 파도의 생성원리와 같은 이론 수업부터 지상에서 중심잡기, 보드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는 동작인 테이크오프 및 중요한 안전수칙과 응급구조 활동 등을 먼저 배운다. 이후 바다에 가서 보드 컨트롤하는 방법, 패들링 해서 파도 잡는 방법,

2

2 3 파도타기에 성공할 때마다 성취감이 생기면서 긍정에너지가 쌓인다는 학생들

4 양양서핑학교에서 서핑보드, 구명수트를 무료로 빌려주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서핑을 가르치고 있다.

3

4

파도를 잡고 테이크오프하기 및 옆으로 파도의 경사면을 타는 사이드라이딩 등을 배우게 된다.

이승준(3학년) 학생은 "테이크오프가 힘들지만, 바다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학교생활도 즐겁고 주변에서도 많이 부러워한다."라며 웃었다.

서핑 후엔 모두 한뜻으로 바닷가 쓰레기 정리

"선생님, 쓰레기는 어디에 둘까요?" 김준성(3학년) 학생이 해변에서 주워온 쓰레기를 손에 잔뜩 들고 서 있다. 교육시간에 '서퍼행동강령'을 배운 동아리 부원들은 서핑을 끝내고 나오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섬주섬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다. 서핑학교 한 편에 쓰레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발에 묻은 모래를 털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서핑은 스포츠이면서 문화이고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라고 한다. 서퍼들에게는 서핑을 위해 찾은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에 융화되어 지내는 문화가 있다. 그 지역 물건 쓰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법질서 지키기, 바다 사용료 대신에 바다 쓰레기 가져오기 등 특별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있다.

안세진 교사는 "행동강령을 배우지만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오롯이 아이들이다. 자기 바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 기특하다."라고 뿌듯해했다. 또 몇 개월 사이에 동아리 학생들의 체력도 좋아졌다며 자랑했다.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서핑은 보드 위에서 파도를 타면서 일어서기 때문에 균형감과 근력이 좋아야 한다. 지상에서 테이크오프를 계속하다 보면 코어근육이 좋아지고 손을 노처럼 사용하는 패들링을 계속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드를 탈 수 있는 파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지고 파도타기에 성공할 때마다 성취감이 생기면서 긍정에너지가 쌓인다. 그 밖에 파도소리는 자율신경계에 균형을 맞춰주는 치유의 효과가 있어서 해외에서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으로 서핑을 활용하고 있다고. 무거운 보드를 들고 모래밭을 이동하면서도 신났던 학생들은 파도가 없는데도 바다에서 나올 줄을 모른다.

안 교사는 "2학기가 시작되면 10월로 예정된 양양서핑 페스티벌을 부원들과 함께 견학할 계획이다. 양양지역 아이들이 더 많이 양양 바다를 즐기면서 서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써사모가 전통의 동아리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

Mini Talk

김희예(1학년) 학생

큰고모가 서핑하는 사진을 보고 나서 관심이 생겼다. 마침 학교에 동아리가 생겨서 가입하게 되었다. 어릴 때 물에 빠졌던 적이 있어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만, 열심히 해서 잘 타고 싶다. 아직 보드에서 일어나는 것을 못 해서 시간날 때마다 와서 해보려고 노력 중이다. 지금은 동아리에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울 때도 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와 같이했으면 좋겠다. 선배가 되면 후배들을 잘 챙겨 줄 자신이 있다. 잘할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장찬휘(3학년) 학생

서핑은 평생 하고 싶다. 작년에 60대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와 함께 파도를 탄 적이 있는데 겨울에 바다에서 또 만났다. 그분 모습이 멋졌다. 요즘에는 파도가 좋은 호주로 유학도 생각 중이어서 선생님과 상담 중이다. 방학 때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벽에 파도를 탄다. 파도가 좋을 때는 보고만 있어도 신나는데 들어가서 보면 또 다르다. 바다를 보고 있다가 길이 난 파도를 찾으면 기분이 좋다.

김준성(3학년) 학생

매주 금요일마다 수업 시간에 낙산해수욕장으로 나온다는 생각만 해도 즐겁다. 학교에서 다 함께 버스를 타고 오니까 더 재미있다. 아직 패들링은 어렵지만, 보드에서 테이크오프할 때 기분이 좋다. 졸업 후에도 서핑동아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양양에 사는 더 많은 친구가 서핑을 접할 방법을 생각 중이다. 양양군 청소년 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업계획을 세워보고 싶다.

박요셉(3학년) 학생

양양에는 서핑 광고판이 많다. 그래서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학교에서 동아리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다. 선생님의 도움 없이 파도를 혼자 탔을 때 굉장히 짜릿하다. 파도에 타이밍을 맞춰서 해냈을 때 그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제대로 성공하면 진짜 기분이 좋다. 서핑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먹는 라면은 그 무엇보다 맛있다. 파도와 한 몸이 되는 경험은 꼭 느껴봐야 한다.

박요한(3학년) 학생

서핑은 힐링이다. 보드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파도를 늘 잘 타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서핑하러 나오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학교 친구들이 부럽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는 어깨를 으쓱하게 된다.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낙산해수욕장까지 오는 데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자전거길이 정말 좋다. 벚꽃길도 좋고 서핑이 끝나고 보는 석양도 좋다. 앞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서핑을 즐기고 싶다.

한마음교육봉사단장
최병규 KAIST 명예교수

“다문화가정 교육 멘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립니다”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최병규 명예교수는 국내 산업공학 1세대다. 2014년 8월, 정년 퇴임한 후에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봉사단을 꾸렸다.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마음교육봉사단’이다. 이곳의 단장을 맡으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그를 만났다.

글_편집실

“초등학생 자녀들을 지도할 때는 특히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엄마는 우리 말이 서툴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녀들의 학습지도 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통계청 자료(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 수는 33만 5,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들 다문화가정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현재 10만여 명을 넘는다. KAIST 최병규(72·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2014년 정년퇴임 이후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 봉사에 주력하고 있다. ‘다문화엄마학교’와 ‘한마음글로벌스쿨’을 운영하는 ‘한마음교육봉사단’의 단장을 맡으면서다. 한마음교육봉사단은 재계와 학계, 교육계, 전국의 지자체에서 뜻을 모으며 2015년 1월 설립됐다.

다문화엄마학교·한글스쿨 7년 동행

현재 다문화엄마학교는 대전본부를 비롯하여 서울·경기·충청·영남·경남·호남지부 등 전국에 23개 학교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올가을부터는 제주 서귀포, 전남 보성과 진도에도 추가될 예정. 한마음글로벌스쿨(이하 한글스쿨)은 다문화가정의 중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으로, 2023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다문화가정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2014년 무렵이었어요. 당시 박사과정에 있던 제자와 지인으로부터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해 들으며 산업공학자로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이후 다문화 관련 교육 관계자, 지자체 인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전 지역 중점학교에서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시는 김효정 선생님도 그때 인연이 되었고요.”

지난 8월 3일, KAIST 산업경영학동 4층에 있는 한마음교육봉사단 사무국에서 진행한 최 명예교수와의 인터뷰에는 김효정 교사(한마음교육봉사단 교육이사)도 배석했다. 최 명예교수는 “김 선생님을 비롯하여 전·현직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다문화엄마학교의 교육 콘텐츠는 열성을 다해 만든 만큼 대한민국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한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엄마학교 강의는 초등과정 자녀 지도에 필요한 7개 과목을 200개 강좌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엄마학교 프로그램의 강점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다문화가정 엄마들이 대개는 낮에 일하면서 가족의 경제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저녁 시간이나 아침에 시간 날 때 찾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10개 강의, 총 20주 일정이에요. 주말에는 수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중간평가도 합니다. 각각의 교실에는 지역의 선생님들이 배치돼 온라인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고요. 평가에서 80점 이하를 받으면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입학부터 수료까지 외국인 엄마로서는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산업공학자로서 최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인력을 어떻게 교육하고, 배치하는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응원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꿈과 도전"

다문화엄마학교에서 배출한 졸업생은 현재 1,100여 명이 넘는다. 이들은 졸업 후에 초등생 자녀의 가정학습지도에 한층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사례 발표를 통해 전하고 있다. 교사와 의사소통도 원활해지면서 자녀의 학교생활도 활기를 되찾곤 한다. '한글스쿨'은 초등학생 자녀가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할 때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기 학생 중 몇몇은 올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

"한글스쿨 역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줌(Zoom)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수학 지원 강의는 KAIST와 서울대 등 이공계 학과 교수진이 맡아서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력 부진과 격차 없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게 한마음교육봉사단의 목표지요."

최 명예교수는 "한글스쿨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은 영어와 수학을 위해 따로 학원에 보내지 않을 정도로 만족도가 특히

> "교육의 미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처럼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손을 맞잡고 함께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1 카이스트 내 사무국에서 만난 최병규 단장
2 포항 다문화엄마학교 6기 출석 수업 ⓒ 한마음교육봉사단
3 검정고시 수험표를 든 대전 다문화엄마학교 13기 ⓒ 한마음교육봉사단

높다."라며 "이에 엄마학교나 한글스쿨의 역할에 대해 단장으로서 남다른 소명 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가정과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누군가 도움의 손길 없이도 잘해 나가요. 교육의 미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처럼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손을 맞잡고 함께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초·중·고를 합하면 약 16만여 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존재하고, 그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요."

가정연대형 사회적 교육에 주목하다!

최 명예교수는 요즘 들어 '가정연대형 사회적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언론 매체 기고나 지자체에서 강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는 주제다. 다문화엄마학교나 한글스쿨 같은 프로그램이 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최 명예교수는 "한글스쿨 수강 지원서에는 자녀가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멘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학부모의 서약서를 반드시 받는다."라고 소개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과 학습 목표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미래학자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일찍이 '미래사회는 정부와 소셜 부문이 공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설파했어요. 저 역시 공교육 안에서 감내할 수 없는 부문은 '가정연대형 사회적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엄마학교 등 한마음교육봉사단의 인프라를 고려하면 1,100여 명의 졸업생은 아직 미흡한 결과이기도 해요."

최 명예교수는 "전·현직 교사나 이공계 교수진, KAIST 학생들처럼 고도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는 사회 전반에 걸쳐 폭발적인 에너지로 표출되고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관심 부족과 예산 및 기업후원의 중단 등으로 문을 닫는 엄마학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 엄마학교 폐교는 그 아쉬움이 배가되는 것도 사실. 최 명예교수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지자체장이나 다문화 정책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PECIAL

vol.482 SEPTEMBER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 2년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5월 2일부터 온전한 학교의 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지 못했던 다양한 단체 활동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 2학기에는 비교과 활동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 활동을 해야 하는 학교 현장의 특성상 '안전'은 더욱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교육부-교육청의 학교 안전점검을 비롯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방안, 다시 시작된 생존수영교육과 학교 석면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봤다.

16 온전한 학교의 일상 회복, 학교 안전을 점검하다
20 안전한 등굣길, 안전교육이 최고의 보약
24 다시 살아나는 생존수영, 어린이 물놀이 안전 책임진다!
28 학교가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글 _ 편집실

온전한 학교의 일상 회복, 학교 안전을 점검하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 활동을 해야 하는 학교 현장의 특성상 '안전'은 더욱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단체 활동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우려, 체험활동에 따른 사고의 위험, 학교 노후 시설물 등으로 인한 재난 등 학생 안전에 대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50일간 1,25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시설 안전진단과 기숙사, 통학로 등의 학교를 둘러싼 안전을 점검해본다.

1,250개교에 학생 안전 50일 집중 점검

교육부는 5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50일간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초·중·고교 등 1,250개교(대학 10개교 포함)를 대상으로 △감염병 및 식중독 등 관련 학교방역 및 급식위생 분야 △체험학습 및 대학 집단연수 등과 관련한 교육활동 분야 △교통안전 및 시설물 안전 등과 관련한 학교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촘촘하게 점검을 진행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꾸려 50개교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시도교육청(1,200개교)과 대학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안전 점검을 하였다.

교육부 현장점검에서 경기 A병설유치원은 급식실 입구 손세정대 및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 급식실 방역·소독 등 실내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일부 통학로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거주자 차량으로 인해 유아들의 등하교 시 안전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의 보·차도를 분리하는 한편, 3회에 걸쳐 유찰된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충남 B초등학교는 학내 시설물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고 학생 교육활동을 대비하여 특별실 내 안전 대비가 철저하며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교육회복에 대한 지원이 우수한 것으로 꼽혔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성 저하, 정서 불안정으로 학생 상담이 크게 느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 현장점검단은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유선 전화 등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등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문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색상으로 칠할 것과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을 제작하여 요약한 내용은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조치하였다.

대구 C중학교의 경우, 현재 교문 옆 부지에 학교 강당 신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학교는 소음 및 교통 장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설명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있었다. 다만, 공사 차량 등 외부 방문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미흡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도록 했다.

충남 D고등학교는 현장 체험학습 시 교통안전과 학생 수송차량 안전 점검을 위해 시청과 협업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반면, 이번 점검에서 과학실험실(물/화/생/지)의 물품 정리 및 관리가 어수선하고 물품 비치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현장점검단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 정문 안쪽의 옹벽 배흘림 현상과 시멘트 마감재가 벗겨져 폭우 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옹벽 전체 공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육부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은 지난 2년여간의 방역 경험을 토대로 학교방역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학생건강 관리가 양호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교육활동에서도 비교과 활동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결손 회복 등을 위한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에 있어서 대체로 원만하게 운영·관리되고 있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발굴·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장점검단은 다만, 「재난안전법」, 「학교안전법」, 「교육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증가하는 안전 업무로 인해 부족한 학교 안전관리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

1 대학 내 공사장 안전 점검
2 특수학교 내 외부계단 하단 부딪힘 방지 설치
3 급식실 청결 상태 및 환기시설 점검
4 테크 공사현장 안전 점검

적인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교육부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확인된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학생,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또한, 교육부는 교육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모든 기숙사에 단계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자동 소화설비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설비다. 현행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5,000m²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연면적 100m² 이상 합숙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광주 E고등학교 기숙사는 지상 3층의 803m² 규모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시설이다. 100여 명의 학생이 1~2층은 생활관으로 3층은 학습실로 사용하고 있다. 1층 출입구에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와 소독제 등이 있으며,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바로 앞에는 응급상황을 대비한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 각 층 계단이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지점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비상대피도를 부착했으며, 방에는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가, 복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지어진 지 40년 된 기숙사의 공간이 협소해 4평 남짓한 공간에 4~6명씩 생활하고 있어 책상이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비좁은 상황이었다. 복도 끝에 건조대가 놓여 있어 비상 상황 시 대피로를 막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에 기숙사가 있는 초·중등학교는 1,195개교(1,619동)로 이 중 E고등학교처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는 248개교(341동)로 21%에 그쳤다. 79%는 미설치된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간 교육시설 화재는 978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기숙사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기숙사에도 소방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199억 원을 들여 947개교(1,278동) 기숙사에 단계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필수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8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련원과 교육·연수원 62개 기관 등 총 99개 기관에 대해서 중형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와 진입 장애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시설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데다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2학기 체험학습, 대면교육 등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학생수련원 등도 포함했다.
소방차 진입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물 제거, 진입로 확장 등을 추진한다. 건물 간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스프링클러, 옥외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화재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자료(8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올여름 서울, 인천, 경기 등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교육시설에 침수, 누수, 축대 파손, 토사 유실 등 176개교에 피해가 발생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호우피해가 심했던 서울 목일중학교와 신목고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서일중학교는 개학을 며칠 연기했다.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은 “학교는 학생들이 집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재난, 재해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표1 -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전체 기숙사 현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미설치 건물	
		전체 설치		일부 설치			
학교 수	건물 수	건물 수	건물 수	학교 수	건물 수	학교 수	건물 수
1,195	1,619	248	341 (21.1%)	51	67 (4.1%)	896	1,211 (74.8%)

5 기숙사 입구에 비치된 열화상카메라와 제세동기

6 기숙사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

표2 - 최근 5년간 교육시설 화재 현황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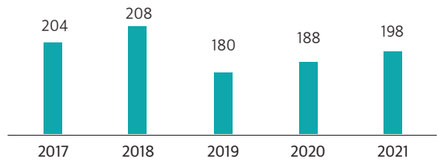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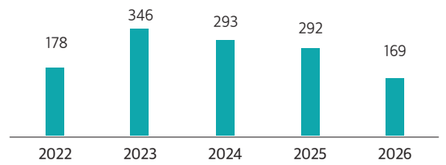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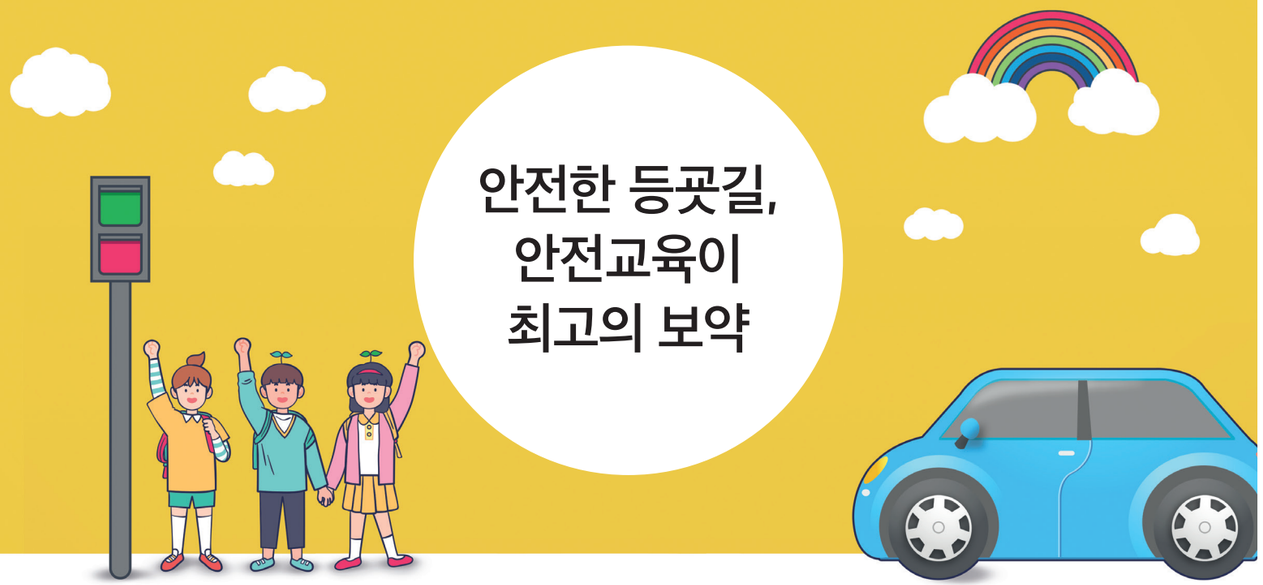


표3 -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계획(안) (단위: 동)



글 _ 허억 가천대학교 교수



안전한 등굣길, 안전교육이 최고의 보약

5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매년 1만여 명 이상씩 사상당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분석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다.

첫째, 보행 중, 즉 도로를 건너다가, 이면도로를 걷다가 나는 사망사고가 전체 60%를 차지한다. 둘째, 차내에 있다가 차량 간 정면에서 부딪히는 충돌, 뒤에서 차를 받는 추돌 사고가 30%다. 셋째, 자전거, 인라인 등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가 10% 정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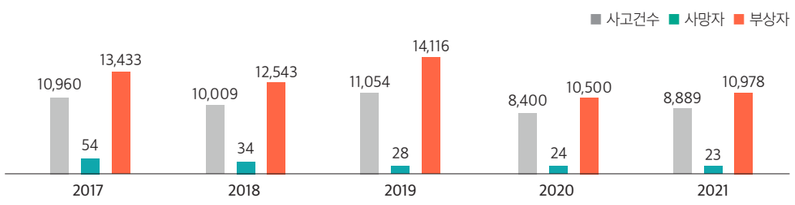
특히 요즘 전동 킥보드가 급격히 증가하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치 않은 채 통학로를 달리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상의 사고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체험 교육만 꾸준히 한다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한 미국의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토록 한다면 안전사고는 88%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도로 지형 구조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다발지점과는 달리 어린이 자신 스스로가 사고의 독립변수다. 즉 어린이가 많이 모여있는 곳,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든 장소가 바로 사고다발지점이다. 그래서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사고다발지점인 통학로에 안전한 인도를 확보하고 과속방지턱, 보·차도 경계턱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이유다.

미국 국립번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벼락을 맞아 죽거나 다칠 확률은 최대 1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내 자녀가 1년간 살면서 교통사고로 사상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매우 높다. 무려 26분의 1이다.

보험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미한 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205만 명이니 인구수 5,180만 명으로 나누어보면 이 수치가 나온다. 실로 무섭고 매우 심각하다. 더 심각한 것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등 국민이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정작 코앞까지 다가온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설마'라는 생각 대신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평상시 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대응하는 행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훨씬 높다. 실제로 최근

표 -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17~2021) (단위: 명)



* 어린이는 13세 미만임

출처: 경찰청

학교 통학로는 얼마나 안전할까?

우리 어린이들이 날마다 이용하는 학교 통학로는 과연 안전할까?

첫째, 전혀 안전하지 않은 통학로가 너무나 많다. 안전한 통학로의 기본 선결 조건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별되어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상충하지 않는 안전한 인도 확보다. 그런데 7~8m에 불과한 통학로를 차량 양방통행으로 하다 보니 어린이들이 차량 사이로 생명을 담보로 한 채 곡예 보행을 하고 있다. 당연히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하여 차량 동선과 어린이 보행 동선을 분리해 주어야 한다.

둘째,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각하다. 어린이는 행동 특성상 조급하여 항상 뛰려는 특성이 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면 차에 가려 어린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18배나 높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고 통학로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역시 통학로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셋째, 통학로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횡단보도 앞까지 설치된 노상주차장 또는 버스 정류장 역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보행 시 차에 가려 어린이가 잘 보이

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다. 곳곳에 인도 단절 구간도 많고, 인도상에 노상적치물을 쌓아 어린이가 차도로 내몰리고 있으며 안전한 인도는 확보했는데 차도와 인도 간 단차를 두지 않아 차량의 인도침범 위험이 높은 곳 역시 매우 많다. 당연히 이런 위험요소를 다 배제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의 보행능력을 키워주자

이상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위험요소를 배제해 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교육이다.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통학로 내 빈발 사고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주고 위험한 보행환경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보행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어린이가 집 밖으로 나오면 차와 만나는 이면도로를 접하게 된다. 7~8m에 불과한 이면도로가 양방통행일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걷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는 차를 마주 보면서 통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례 분석을 해보면 차를 등지고 통행하는 것이 차를 보면서 통행하는 것보다 사고위험이 4배나 높았다.
또한, 좁은 이면도로에서 차가 오면 일단 멈춘 후 몸을 벽 쪽으로 붙이고 차가 지나간 다음 걷도록 해야 한다. 자칫 교육받지 않은 어린이가 순간적으로 차가 오면 빨리 가려고 뛸 경우, 운전자가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음은 횡단보도를 만난다. 일단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인 연석선에서 우선 멈춘다. 그런 후 횡단보도는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우측에 선다. 횡단보도 우측에 화살표시가 그려진 이유가 바로 우측 통행이 안전함을 표시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손을 들어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춰 주세요." 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한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내가 먼저 갈까?", "상대방이 먼저 갈까?" 눈치를 보다 서로 먼저 갈 경우 사고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손을 들어 "먼저 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전달한 후 차량 멈춤을 꼭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이때 손은 운전자를 보며 처음에는 왼손을 45°로 들어주고, 반쯤 지나면 다시 45°로 오른손을 들어줘야 한다. 만일 가방이나 우산을 들고 있으면 반드시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의사표시를 한 후 반쯤 지나면 오른손을 들지 않고 고개만 돌려 우측 차량이 멈추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된다.
눈이나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있는 경우 연석선에서 1~2보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이는 우산을 들고 연석선에 서 있으면 우산이 차도 쪽으로 나가게 되며 자칫 차가 우산을 치면 어린이가 차도로 같이 빨려 들어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정차가 되어 있는 곳을 지날 때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차량 뒤에서 놀거나 차 밑 물건을 꺼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몇 해 전 광명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2명이 하굣길에 장난을 치다 한 아이가 던진 물건이 불법 주정차한 차 밑으로 들어갔고, 한 아이는 꺼내고, 다른 아이는 뒤에서 지켜보다 급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은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지만 예방적 측면에서 볼 때 가정과 학교의 안전교육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다.
만일 선진국처럼 차 밑에 물건이 들어간 경우, 어린이가 바로 꺼내지 않고 운전자에게 "꺼내주세요."라고 부탁하도록 하는 안전교육만 가정과 학교에서 받았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치 않았을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3가지 습관

선진국에서 "당신 자녀가, 당신 제자가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면 당장 3가지 습관을 길러줘라."라는 말이 있다.
첫째, 우선 멈추는 습관(Stop)이다. 항상 차도로 나갈 때, 도로를 건널 때, 뛰지 말고 일단 멈추라는 것이다. 일본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뛰는 것이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사고위험이 7배나 높고 주정차 차량 사이, 앞뒤로 뛰어 횡단하는 것은 18배나 높았다.
둘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Eye Contact)이다. 손을 들어도, 보행자의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으므로 항상 운전자를 바라보며 차량이 멈추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이다. 길을 건널 때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차량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건넌다면 보행 중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치 않게 할 수 있다.
셋째, 길을 건널 때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Arrive Alive)이다. 이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당황하여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상의 3가지를 어린이들에게 습관화만 시켜준다면 대부분의 보행 중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내 제자, 자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만큼 좋은 보약이 없음을 인식하고 평상시 꾸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교육이 최고의 보약이다.

글 _ 안광석 객원기자

다시 살아나는 생존수영, 어린이 물놀이 안전 책임진다!

매년 이맘때면 뉴스 한 코너를 차지하는 사건사고가 있다. 바로 물놀이 익사 사고다. 최근 5년간 사망자만 147명에 달한다. 객기에 위험한 행동을 벌이다 발생한 사고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평소 수영실력을 뽐내던 이들도 실제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는 생존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깨끗한 실내수영장과 달리 시야를 가리는 탁한 수질과 신발 등 복장, 물에 대한 공포심으로 제대로 수영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체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간 10시간 내외의 생존수영을 교육하고 있는 이유다.

1 잎새뜨기 자세는 생존수영의 기본이다.
2 다이빙 실습을 하는 창원 삼계초 어린이들
(사진 제공 = 삼계초등학교)

"3년 만에 진행되는 실습이라 수영장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물에 대한 공포심이 줄어서인지 개인적으로 수영 강습을 받겠다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삼계초등학교는 2015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시작했지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론 수업만 진행해야 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생존수영 실습을 진행한 이 학교 최진희 교사는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4일에 걸쳐 진행된 실습에서 혼자 머리 말리는 것도 처음인 아이들이 불평 없이 잘 따라와 줬기 때문이다.

창원 삼계초, 3년 만에 생존수영 실습 재개

첫째 날, 물에 익숙해지는 단계로 시작해 기본 호흡법과 발차기 연습, 그리고 물에 뛰어드는 다이빙 자세까지 실습했다.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던 아이들도 친구들을 따라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둘째 날에는 부동 스틱의 도움을 받아 물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진행했으며 셋째 날은 심폐소생술과 페트병을 이용해 물에 뜨고 이동하는 훈련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에는 구명조끼 착용법과 오랜 시간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잎새뜨기 생존수영으로 교육을 끝마쳤다.

3 페트병 등 주변 도구를 활용해 물에 뜨는 실습도 진행했다.
4 진지한 태도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어린이들

"누워만 있는데 물에 뜨는 게 신기했어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수영에 대해 조금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생존수영 실습에 참여한 4학년 박서정 어린이는 생존수영 실습 후 수료증까지 받아서인지 뿌듯함을 감추지 못한다.

스포츠가 아닌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수영

생존수영은 기록을 단축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로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수영방법을 말한다. 물 위에서 최소한의 체력으로 최대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람이 가진 기본 부력만으로 물 위에 뜰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한다. 무엇보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현재 초등학교의 수영교육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생존기능, 둘째 수영기능, 셋째 구조기능이다.

교육 역시 학년별로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2학년은 물적응 및 물놀이 교육 단계로 물과 친숙해지기 위한 체험활동 위주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체험활동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3~4학년은 물에 빠졌을 때 생존방법을 반복 실습해 생존능력을 기르는 단계다. 생존과 수영, 구조 등에 대한 기초적인 활동들을 체험하게 되며 배영과 평영 등 수영의 기본실력을 함양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5~6학년은 이전 단계에서 배웠던 기초능력을 숙달해 보다 먼 거리를 수영할 수 있고 강과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인공호흡 등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역량까지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생존수영에 집중 투자하는 해양 강국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영장 시설을 갖춘 초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연간 10시간 정도 진행되던 생존수영 교육이 대부분 이론 교육으로만 채워지거나 실습시간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어서다. 또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인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존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도 알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학교에서의 생존수영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수라고 판단해서다.

해외에서는 생존수영 교육 시 수영복이나 물안경,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소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신발까지 착용하고 교육을 받는다.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가거나 미끄러운 갯바위에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66
평소 물놀이 사고는 훈련을 통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99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젖은 옷이 몸을 휘감고 신발 무게로 발동작이 자유롭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기 마련이다. 평소 훈련을 통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존수영 자격 취득해야 졸업도 가능

네덜란드의 경우는 영아 때부터 생존수영을 가르치며 매년 4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 A, B, C등급으로 구분되는 국가 수영 자격증은 만 4세부터 딸 수 있다. A과정은 일상복을 입은 채로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B과정은 A과정 자격증을 얻은 후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C과정은 100m를 4가지 영법으로 수영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C과정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윈드서핑이나 수상스키 등의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없도록 했다.

독일은 자유형보다 평영을 더 중요하게 교육시킨다. 에너지 소모가 적어 구조될 때까지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며 생존능력뿐 아니라 구조능력까지 겸비해야 졸업을 시키는 학교도 있다.

호주의 경우는 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이 매년 10일씩 총 30회의 수상안전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지도자

이처럼 해외 각국이 생존수영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가치 있는 교육도 없어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존수영 교육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우선 시급한 문제가 제대로 된 실습을 진행할 수영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지난달 교육부가 해양경찰교육원과 협업으로 실시한 생존수영 교육 심화연수 과정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2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생존수영 교육 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원들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생존수영 교육 핵심강사로 활동하며 관내 교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받은 내용들을 전달하게 된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초등교원 280명 직무연수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과정은 2박 3일간 40명씩 모두 7기수로 나눠 진행됐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인공파도를 일으키는 구조 수영훈련장과 선박 재난훈련장 등 다양한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연인원 3,000명의 해양경찰 교육과 다양한 대국민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전문화된 교육인력을 자랑하는 기관이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도 해양구조와 수상구조, 생존수영, 선박탈출 등의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됐다. 교육내용도 생존기능 중심의 누워뜨기, 주변사물을 활용한 구조활동, 수중적응활동, 저체온증 예방방법, 모의선박 탈출 등 생존수영 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학생들의 위급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구조 및 자기보호 역량을 기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교육을 진행한 해양경찰교육원 김진호 경장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다.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

국가 차원의 생존수영 교육 강화해야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다시 주춤하고 있지만 2년 가까이 멈춰 섰던 생존수영 교육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와 정부기관을 시작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재개하기 시작해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해외의 사례에 비해 대한민국의 생존수영 교육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각국이 생존수영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익사사고를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보지 않아서다.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소리다. 그것도 공공의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기에 국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생존수영 교육이 시작된 지 내년이면 벌써 만 10년이다. 대한민국 교육에서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고 투자가 시급하지 않은 분야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의미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생존수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기대하는 이유다.

5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진행된 생존수영 직무연수에는 전국 280여 명의 초등교원이 참여했다.
6 해양경찰교육원은 첨단설비와 전문화된 교육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해양경찰교육원)

글 _ 김숙영 학부모(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

학교가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66
석면을 일시에 철거할 수 없다면 학교의 석면 건축자재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안전한 석면 해체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99

평범한 학부모가 학교 석면 활동가가 되다

필자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 둘을 둔 학부모이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던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학부모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 지극히 평범한 학부모였다. 2018년도에 둘째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석면텍스 천장을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해 학부모회 임원이었던 필자는 여름방학에 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과정에서 석면 천장 일부를 교체하는 공사가 있다는 학교의 이야기를 들었다.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자발적으로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공사 기간 모니터 활동을 하다가 석면 해체·제거가 끝난 화장실과 복도에서 석면 조각을 발견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학교 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석면텍스 조각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해 늦가을 나는 평범한 학부모에서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가 되어 있었다.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를 목표로 석면 해체·제거 진행 중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절연성, 유연성 등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건축재를 포함한 수천 가지의 제품으로 만들어져 곳곳에 쓰였다. 하지만, 악성중피종암,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1980년대 북유럽에서부터 사용이 금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전면 사용이 금지되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되며, 학교에서는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석면텍스), 화장실 칸막이(밤라이트), 기계실(개스킷) 등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되었다.

교육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전수조사를 시작하였고, 2015년 9월부터 학교 건축물 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5차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노후화된 학교의 석면 해체 제거사업을 시작하여 2027년까지 전국 '무석면 학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총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중 45.7% 5,454개 학교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어 학부모로서 높은 수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2027년까지 석면 없는 학교를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어야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하는 학교에 석면이 남아있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과 교직원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되기까지 철저한 관리 필요

지난 5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교실 천장에서 하얀 가루가 날린다는 제보를 받았다. 긴급하게 아이들을 다른 교실로 이동시키고 확인한 결과, 선풍기 주변의 석면텍스가 선풍기 진동으로 훼손이 된 상태라 긴급보수작업 후 헤파필터(미세한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로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외에도 청소기, 무균실 등에서 사용)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석면이 있는 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반드시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 지정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석면의 손상 정도를 조사해 1년에 2번 기록으로 남기고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각 학교의 석면 안전성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유지보수 명령 같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는 석면파손상태에 따른 석면 위해 정도에 따라 높음(20점 이상), 중간(12점 이상), 낮음(11점 이하)으로 구분한다. 우리 학교는 서류상 위해성 등급은 '낮음'이었다. 선풍기 진동만으로 가루가 날릴 정도인데 석면의 위해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건 문제가 있었고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문스러워 직접 교실들을 확인하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유지보수와 재평가를 요청하였다. 다시는 학교에서 석면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전체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직원은 모든 위험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석면을 일시에 철거할 수 없다면 학교의 석면 건축자재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안전한 석면 해체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가족들이 석면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교 시설물에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의 유지보수와 석면 해체·제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글_편집실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실현을 위해 교육부 전면 혁신을 시작으로 출발선 단계의 국가교육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 양성, 고등교육 혁신, 전 국민 평생 역량개발 체제 구축 등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8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먼저, 정책의 관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여 학생·학부모 대규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사회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가칭)미래교육 비전 2040(안)을 마련하여 미래교육의 방향도 제시하며, 에듀테크 산업 진흥, 한국교육모델의 세계 진출 등 새로운 미션도 발굴해 나간다.

또한,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과 국가책임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등 인사·조직을 전면 쇄신한다. 그 밖에도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 현안에 집중 투자하며 국회, 예산당국 등과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2022년 8월
- 1차 조직 개편안 마련(8월)
  * 국교위 설립 연계, 교육과정 부서 폐지

2022년 말
- 전면 조직 개편('22.下)
  * 조직진단(행안부 주관) 이후 실시
- 특별회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12월)
- 미래교육 비전 2040(안) 마련('22.下)

2023년~
-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한 신규업무 발굴(계속)
-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국가교육책임제로 교육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교육부는 모든 아이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할 계획이다. 양질의 교육을 조기에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며,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방과 후·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먼저, 안정적이고 질 높은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23년부터 운영하며, '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모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1. ~17시 → '22. ~19시 → '23.~ ~20시)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만큼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을 확충하는 한편, 돌봄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여 돌봄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학력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집중하고 강화한다. 먼저,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1수업 2교(강)사)-학교(다중지원팀)-지역사회(학습종합클리닉) 단위에서 밀착 지도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2년 8월
-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추진(8월~)

2022년 말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마련(9월)

2023년~
- 유보 관리체계 통합방안 마련('23.) 및 일원화('24.~)
- 유치원-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마련·추진('23.~'26.)
- 초등 전일제학교 시범운영(3월~)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 및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22.12.)할 계획이다. 한편,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 우수 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 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학교를

신설('23. 3개교 시범)하여 강의를 공유하며,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그뿐 아니라, 미래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22.12.)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24.2.)에 반영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 8월	2022년 말	2023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각론 시안 마련(~8월)	•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 마련(12월) • 2022 개정 교육과정 대국민 수요조사(~11월) 및 최종 개정안 고시(12월) • 대입개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하반기)	• 토론회·공청회('23.上) 및 고교체제 개편 방안 확정('23.6.) •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 마련('23.上), 최종안 확정('24.2.)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총력

교육부는 석·박사급 선도인력을 위한 대학원 지원부터 (전문)대학의 디지털 신산업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SW·AI 분야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하여 수준별 디지털 전문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교육을 통해 기초역량을 갖추도록 초·중등 정보 수업을 2배 확대(초 34시간, 중 68시간 이상)하고 코딩교육 필수화 등을 추진(2022 개정 교육과정)한다.

그 밖에도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3~4학년 학부생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학-석-박사 통합과정(5.5년)도 운영한다.

또한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재직자를 위한 '학습경험인정제'를 확산하며 대학의 질 높은 평생교육과정을 제공('23.~)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년 8월	2022년 말	2023년~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월)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월)	• 인재양성 전략회의 운영('22.下) • 「인재양성기본법」 마련(12월) •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계속)	• 국가 인재양성 기본계획('23.上)

1 (고급:석·박사)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22. 205개) 및 특성화대학원 확대
(중급:학사) 디지털 혁신공유대학('22. 8개교),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22~'27. 135개교)
(초급:고졸·전문학사) 신산업 특화 전문대('22. 12개교), SW·AI 마이스터고(권역별 1~2개교)

대학 여건·역량별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 지원

교육부는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해 나가며, 대학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고급인재 양성과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대학이 우수 교육·연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국립대학이 국가 전략 분야와 기초·보호학문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국립대학 육성사업('18.~'22.) 38개교, 연간 1,500억 원)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은 정상화, 통폐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회생 불가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능전환 등 퇴로를 마련한다.

~2022년 8월	2022년 말	2023년~
• 대학규제 상시발굴체계 운영(8월)	•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마련(12월) •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발의(12월)	•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23.上) • 지역혁신사업 비수도권 전역 확대('23.~)

사회 역동성 높이는 평생 역량개발 체제 구축

교육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22. 약 38,000명)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22. 32개)한다. 온라인을 활용한 평생학습체제도 마련한다.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K-MOOC를 '25년까지 2,045개 강좌로 확대하여 국내외 대학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분야 강좌 및 AI 등 대학의 신산업 강좌 등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한,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SW, AI,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서비스 분야 등으로 직업계고 학과·교육과정을 개편('22. 79개교, 102개 학과)하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직무교육 → 채용 연계 → 기업현장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22. 1,050명)한다. 그 밖에도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함께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를 구축('22. 30개)하여 지역 내 '전문기술인재양성 → 취업 → 정주'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립하며, 마이스터대('22. 8개교)를 통한 신산업 분야 등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한다. 끝

~2022년 8월	2022년 말	2023년~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사업 지원('21.~'22. 8개교)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추진(6월~)	• 전 국민 평생 역량개발 혁신방안 마련('22.下)	•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 고도화('23.上)

디지털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부터 시작

글_편집실 그림_이정화

최근 정부는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프로젝트’

‘책임지도제’로 촘촘한 학습 안전망 구축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올 3월부터 시행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법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습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책임지도제’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선도하고 있다.

글 _ 편집실 **사진 제공** _ 대전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으로 기초·기본학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 때부터 학습부진이 누적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무기력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초 ‘대전형 기초·기본학력 보장 프로젝트’를 발표, ‘교실 안-교실 밖-학교 밖’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교사가 책임지는 초등 기초학습

우선, 공교육의 첫발을 내딛는 초등 저학년에서는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있다.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찬찬협력강사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 중이다. 초등 1, 2학년 가운데 읽기, 쓰기, 셈하기 등 배움이 느린 학생을 발견하면 수업 중 즉각적인 개별화 학습을 지원한다. 학습결손을 조기에 예방하면서도 협력교사 도움으로 담임교사도 업무를 덜게 돼 학생, 교사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정규교사도 올해 처음 초등학교에 배치됐다. 문자해독과 기초수감각 지도를 목적으로 기초학력전담교사를 초등 10개교에 추가 배치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국어, 수학 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초학력 관련 교원 연수와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기초학력 지도를 돕는다.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난독증 치료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해 진단·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학 중에는 교육청 연수를 받은 한글문해교육 전문교사가 학교를 방문해 아이를 지도하는 ‘한글문해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소규모로 교과 보충 & 적성·심리 등 다각도 지원

방과 후에는 소규모로 팀을 구성해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무릎공부방’은 전체 149개 초등학교 중 133개교 1,117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임교사가 4명 내외로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희망 학생 등을 지도한다. 교육청은 기초학력 지도에 필요한 지도비와 운영비를 지원, 방과 후뿐 아니라 휴업일, 방학에도 학생의 수준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단위로 다중지원팀을 구축해 학습코칭 등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올해 초·중 54개교에서 189개교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교과 프로그램에 특기적성, 심리정서 지원, 타 사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기초튼튼행복학교’도 49개교를 운영 중이다.

현행 고등학교에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학력디딤돌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기존 고등학교 44개교에서 중·고등학교 133개교로 확대하고, 학습부진 유형별 맞춤 지원을 목표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본학력 결손을 해소한다. 특히, 교과 프로그램과 병행해 심리·정서 지원, 예체능을 포함하는 특기·적성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 2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찬찬협력강사제’는 올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 중이다.

3 4 한무릎공부방에서는 담임교사가 4명 내외로 소규모 팀을 구성해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지도한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로 학교 밖 지원 강화

학교 밖 안전망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있는 학교로 찾아가 1대1 맞춤형 학습 상담과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학습 부진 요인의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은 학습 동기가 생기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초·중·고 141개교에서 개인코칭, 집단코칭, 학습바우처, 학습전략 특강, 학부모 학습 상담 등이 진행됐다. 센터는 7월 자기계발 시기에는 학습전략 특강을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배움동행 학습캠프를 운영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DTBS)을 활용한 학습 진단·보정 지원,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운영, 기초학력지원단 운영, 기초학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진단·분석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생활지도, 진로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교육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은 "관내 초·중학교 99.6%가 활용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학생특성이해검사를 통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진단·판별한 후, 기초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2학기에도 기초학력 튜터를 지원하여 협력수업 및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밀착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 - 기초학력 향상 학습지원 단계

1단계(진단)	2단계(교실)	3단계(학교)	4단계(교육청)	5단계(지역사회)
기초학력 진단 및 판별	교실 안 지원 개별화 수업 및 책임지도 강화	학교단위 지원 두드림학교, 기초튼튼행복학교	교육청 단위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역연계 지원 학습바우처, 대학생 튜터링

5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부모 학습 상담

6 학클 학부모 학습 상담

EDUCATION NEWS

vol.482
SEPTEMBER

NEWS 01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최초 마련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8월 11일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했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10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원칙에는 인간성장의 잠재성 유도,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등이 포함됐다.

NEWS 02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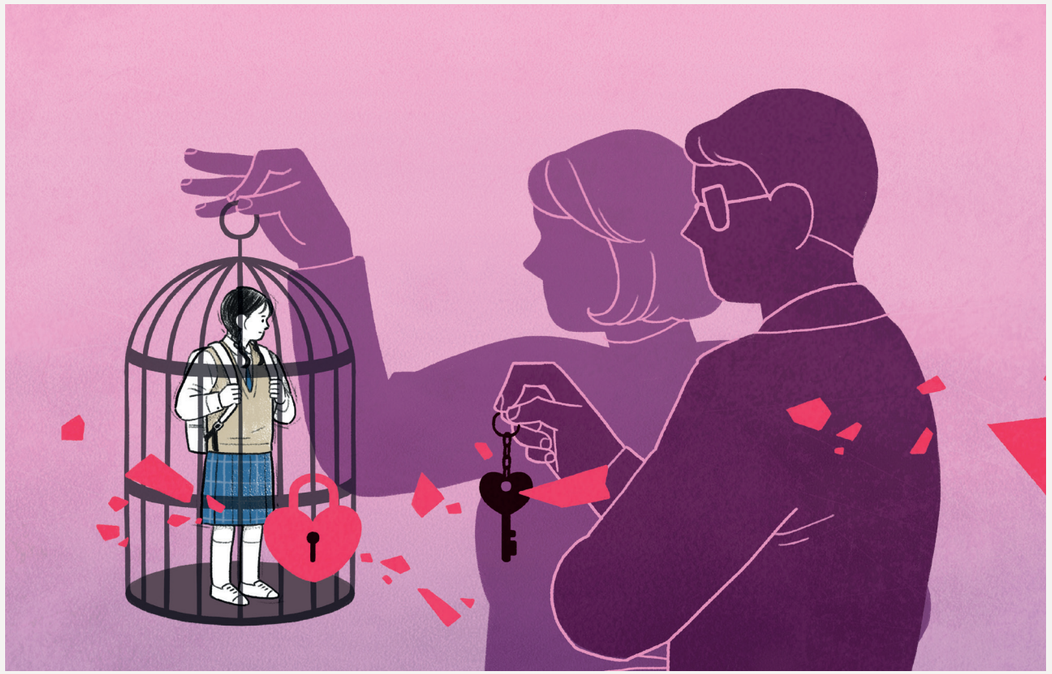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반도체 교육과정 및 관련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자 7월 22일 대림대학교 반도체기술교육센터를 방문했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하여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글 _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상담센터장(우석대 겸임교수)



 # 끝내 돌아오지 못한 유나네 가족...
가족 3명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
 # '빚 많아 힘들다.'라는 글 남기고 숨진
의정부 40대 일가족 숨진 채 발견
 #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교 두 아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부모 선택으로 한 달에 한 명꼴로 아이들 사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20년간 부모의 선택으로 한 달에 한 명꼴로 자녀가 사망했다. 왜 자녀라는 이유로 살해당해야 하는 걸까. 동반 자살이 아니다. 자녀들 관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이 아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죽음을 선택한 것도 아니다.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라며 "그 부모조차도 아이에 대해서 생살여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가 설령 자신의 삶을 포기하더라도 양육하던 자녀의 생명까지 일방적으로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다.

'나는 왜 죽어야 하나요?' '나는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지배하려는 것이다. 진짜 자식을 위한 사랑은 자식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녀를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자녀를 동반한 '비속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동반 자살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죽음을 선택하지만, 비속 살해는 자식 사랑이 아니라 '살인행위'다. 부모가 자식의 동의 없이 자식을 죽일 권리는 없다(<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 중에서). 이런 행위는 자식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과 자식은 내 것이라는 잘못된 소유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내 수족처럼, 내 자식을 내가 죽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부모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부모 자격으로 한 가정의 관리자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잘 성장시켜 사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독립적 인격체로 잘 키워 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내보내야 한다.

삶의 걸림돌은 이겨내고 디딤돌로 삼아야!

삶은 고통이고 힘듦의 연속이 될 수 있다. 고통이 오고 힘들다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산다는 것은 견딤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는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걸림돌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걸림돌은 잘 이겨내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밀> 책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말한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노력과 불안 없이 인생의 승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고.

결정적으로 힘겨운 인생의 사건들이 종종 우리를 시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로 가게 문을 닫게 되고 불법 도박, 주식, 가상화폐로 큰돈을 잃게 되어 수억 원의 부채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내 혹은 남편에게서 우울증 등 정신병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남편(아내)과 부부싸움도 잦게 되고 시댁, 친정갈등이 심화하기도 한다.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한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시댁 사람들이 미워서, 남편이 미워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미수에 그친 한

여성은 복수심으로 자녀를 살해하고 처벌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약하고 어린 자녀를 볼모삼아 남편과 시댁의 분노 표출 대상화(對象化)한 것이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도움을 요청하자

살아가면서 어려운 장애물과 걸림돌이 닥쳤을 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람들은 왜 자살을 생각하나요?' 강의 중 질문하면 한마디로 '내 능력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할 때라고 답한다. 1억 원이 넘는 부채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내의 우울증으로 한 가정이 도저히 헤쳐나가기 어렵고, 능력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할 때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하게 된다. 죽어야 할까? 살아야 할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부모 중 삶의 비중이 큰 누군가가 있다면 살아가는 쪽으로 기운다. 그런데 둘 다 '죽자'라고 합의된 상태라면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 이때 자녀는 그냥 부모가 선택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부등호 표시가 삶과 죽음에서 '그래도 살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라고 살아가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자살 선택을 앞두고 삶과 죽음에서 고민하고 갈등한다. 양가감정이다. 죽을까 살까로 고민한다. 우울증이 있거나 절망적이고 자살을 생각하게 될 때, 좁아진 사고(인지협착)에서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위험한 생각이다. 좁아진 시야(터널비전)도 함께 온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죽음의 유혹이다. 이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고 살아야 한다.

가족 사망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돌봄 필요

앞에서 살펴본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기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 우리 사회, 국가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조유나 학생이 제주도 '한 달 살이' 체험학습을 갔다면 친구들 선생님들은 안부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사전에 미세한 자살징후(언어적 신호, 정서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SNS가 발달하고 반별 단톡방에서 대화, 전화로, 잘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학생 상담을 통해 부모님 경제적 문제, 가정 분위기 파악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가족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채로 인한 개인회생 법적 조치 여부, 부부갈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 안정적 가정을 위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송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이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유사 사건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부모로서 한 가정을 관리하기 위해 어려운 역경 이겨내기(역경지수 높이기), 자아존중감 높이기, 회복 탄력성(Resilience) 높이기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 힘든 어려움이 오더라도 쉽게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족 구성원의 공동체는 우리가 아닌 인격의 성장 구조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학습의 첫 학습원(學習園)인 것이다.

마음이 힘들어서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만 주변에 손을 내밀면 어떨까요? 당신의 주변에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이웃들이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자살예방 상담전화	한국 생명의전화	한국 자살예방센터
1577-0199	1393	1588-9191	02-439-2384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채로 인한 개인회생 법적 조치 여부, 부부갈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 안정적 가정을 위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가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경민 대표변리사

“늘 새로운 기술을 먼저 만나는 ‘행복한’ 직업이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요소 중 하나가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고 활용하는 과정에는 그에 대한 권리 보호도 함께 따라야 한다. 바로 특허와 상표권, 디자인, 실용실안 등 지식재산권 보호다. 변리사는 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출원과 심판, 소송 등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직업인이다. 최근에는 기업의 인증 컨설팅, 기술가치 평가, 벤처캐피털 투자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변리 업무도 다변화하고 있다.

글_편집실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경민 대표변리사가 정의하는 변리사란? ‘행복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인’이다. 의뢰인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늘 새로운 기술을 남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건 변리사라는 직업의 또 다른 매력이다. 48회 시험에 합격, 10여 년 경력인 정 변리사는 현재 대한변리사협회 국제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성남시 청소년 진로 멘토로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변리사가 하는 역할을 소개한다. 전자전기공학 전공으로, 변리 업무로는 UI·UX, 알고리즘, 반도체, 회로설계, 발전장치,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등의 세부기술 분야가 강점이다.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 탐구에 대한 호기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정경민 변리사. “앞으로도 재미있게 일하는 파트너로서, 고객의 성공을 더 많이 견인하는 변리사가 되는 게 꿈”이다. 그는 현재 서정대학교 공학부 인터넷정보과 교수로서 강의도 맡고 있다. 다음은 정경민 변리사와의 일문일답.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지식, 즉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문서화하여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을 사더라도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내 재산이 되는 것처럼 내 아이디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등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권리화하는 것으로, 권리화 후의 아이디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의 강력한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는다. 국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그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자기 아이디어를 문서로 표현하는 데 서툴거나 애로를 느낄 수 있다. 변리사는 바로 이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절차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분쟁 대상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

평생 공부하기를 즐겨야 하는 직업이라고 말하는 정경민 변리사

그동안 수행해 온 변리 업무를 소개하면?

변리사의 업무는 고전적인 영역에 속하는 특허·상표권·디자인·저작권·국제출원 및 등록, 심판·소송 업무 등 다양하다. 최근 들어서는 변리 업무가 기업의 인증 컨설팅, 가치 평가, 상장컨설팅, VC(벤처캐피털)투자, 지식재산(IP) 대출 등 IP를 활용한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 업무는 특허 출원 등록, 심판 소송과 같은 고전적인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서울반도체, BOSCH, SONY, 필립스, 메디씨이, 프레제니우스 카비 게엠바하 등 국내 및 해외 다양한 기업의 특허 출원, 선행기술조사 및 중간사건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 국제 지식재산권 가이드북 작성(IP-NAVI),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강의도 맡고 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이 유리하다는데...

변리사의 주 업무는 바로 특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특허업무를 수행하려면 기술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의뢰인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듣고 글로 표현하려면, 해당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업무를 진행할 때는 관련 기술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가 맡는 것이 보통이다. 이곳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도 컴퓨터과학과, 분자생물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한 변리사가 함께 팀을 이루면서 일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변리사 시험과목에는 '자연과학개론'이 포함돼 있다. 물리, 화학, 지구과학 등 폭넓은 자연과학 지식과 공부가 필요하다. 이공계 출신들도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다. 일반적으로 이공계 출신이 아닌 변리사는 상표나 디자인 관련 특허업무 등을 주로 맡는 추세다.

변리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반면 아쉬움이 느껴질 때는?

수주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느끼는 보람은 무엇보다 크다. 최근에 6년간을 끌어온 특허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의뢰인이 기뻐하던 모습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제과 관련 특허분쟁이었는데 상대방은 글로벌 대기업이었다. 분쟁이 장기화되자 의뢰인도 지치곤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고 서로 다독이면서 6년간을 끌어온 특허분쟁이었다.

변리사로서 느끼는 애환은 분쟁에서 졌을 때라고 생각하기 쉽다. 일정 부분은 그렇기도 하지만, 수주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도 의의로 많다. 특허출원을 의뢰받아 등록까지 완료한 사례가 최근 있었다. 성사 이후 의뢰인의 태도가 달라졌다. 성공보수금을 어떻게든 내지 않으려고 했다. 이럴 때 허탈함이 밀려오곤 한다.

변리사로 일하기 위해서 특별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면?

변리사는 기술법률 전문가다. 기술적인 영역과 법률적인 영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아야 한다. 변리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기술은 진화하고, 법은 계속해서 바뀐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동향을 따라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의 새로운 이슈들도 놓치지 않아야 하며, 판례들도 꾸준히 찾아가면서 개정되는 법 조항들을 계속 공부해야 한다. 어찌 보면 변리사는 평생 공부하기를 즐겨야 하는 직업인이다.

특허 관련 문서는 철저한 검수로 오탈자가 없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잘못하면 특허의 권리 범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칫 프로젝트의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의뢰 업무를 문서화할 때, 적확한 어휘의 사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국제출원 업무의 증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 나라의 고객과 직접 소통해야 할 때가 많다. 특허 관련 기업에서 영어는 물론 외국어 능력자를 선호하는 이유다.

변리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변리사가 되고 싶다면, 고교 시절부터 이공계 공부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다. 하지만 오로지 이공계 분야만 파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자격시험에는 논술 유형처럼 인문학적인 역량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변리사라는 전문직업에 도전하고 싶은 어린 학생이라면, 우선 예습과 복습 등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인으로서 변리사의 미래 전망은?

디즈니, 포켓몬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제 무한대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런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표절이나 무방비한 상표권 도용 등이 도덕적이지 않음은 물론 불법이라는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업화하기 전, 내 아이디어가 혹은 기술이 특허침해는 아닌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기업에서도 전담팀을 두는 등 변리사 채용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출원 건수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2위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개발과 발명은 계속될 것이고, 개인의 아이디어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 다양한 영역의 변리사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TIP BOX |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치러진다. 1차 시험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토익기준 775점). 2차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여기에 선택과목 1과목이 추가된다. 추가 선택과목은 인문·사회,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약품, 기계·전기·전자·화학, 기타(섬유재료학 등) 영역의 19과목 중 1과목이다.

변리사는 매년 200명이 선발된다. 올해가 59회차. 최종 합격자는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2개월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특허사무소에서 6개월 동안 수습변리사 과정을 수료해야 정식 변리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첨단 디지털 시대 '혁신' 원동력 지식재산 전문가

지식재산 전문가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고 이를 활용하거나 보호하는 일을 한다. 기존 산업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재산을 배우고 체험하며 미래 유망직업을 알아보자.

글_편집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 다 알려드려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의 창작, 유통, 이용 환경 개선과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하는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09년에는 저작권 교육연수원을 개원, 저작권 현장은 물론 청소년과 사회 각 부문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학교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지원하는 '저작권 체험교실', 학교와 기관, 단체 등에 특강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이 대표적이다. 저작권 체험교실은 학교 교사가 학급 또는 동아리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강사비 등을 지원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매년 전국 초·중·고교 신청 접수를 통해 300개교를 선정, 총 6차시 동안 저작권 개념,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또는 도서산간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저작권 전문 강사를 우선 지원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창의와 나눔'을 주제로 한 초1~고3 학생 교육, 교직원, 학부모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나 교사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2~3월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로 신청하면 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저작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원격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을 교원직무연수·자율연수·전문 과정으로 세분화해 교원, 산업종사자, 청소년, 학부모, 일반인, 공무원 대상 맞춤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총 44종에 달하는 저작권 교육용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1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_ 서울원명초등학교(김미선 강사)
2 저작권 체험교실_북성초등학교(정용대 선생님)
3 저작권 체험교실_사천초등학교(유재광 선생님)
(사진 제공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교육포털** www.copyright.or.kr/education
- **교육문의** 055-792-0228(온라인 교육)
  055-792-0232~3(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아이디어 창출부터 특허출원까지 전 과정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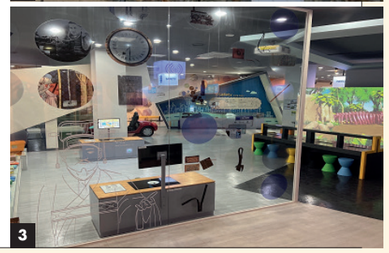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변리사, 기업 특허담당자, 연구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발명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과 발명체험관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인, 공무원, 교원, 청소년, 외국인, 변리사 등 대상별로 나뉜다. 그중 청소년 교육과정은 실습 중심의 발명교육인 2박 3일 학생발명교육과 발명 기초를 배우는 1일 발명체험이 있다. 특히, 학생발명 교육과정은 창의적 문제 해결, 신기술 융합, 지식재산 창출, EV3(교육용 로봇키트) 코딩 과정,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주제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창출 과정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이해 및 발명 아이디어 창출부터 명세서 작성, 전자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새 학년 초에 신청할 수 있다.

발명과 지식재산 강의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들을 수 있는 누리집 '아이피스쿨(IP-School)'도 주목할만하다. 아이피스쿨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발명기자단 취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발명 이러닝 강의를 제공한다. 강의는 학년별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구분된 단계별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플립러닝 과정을 통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발명 이러닝 학습도 지원한다.

연수원 내에는 발명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창의발명체험관도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공작실습실, 발명체험실, VR체험실, 연구자료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한다.

1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아이피스쿨'
2 3 창의발명체험관
(사진 제공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https://ipschool.ipacademy.net
- **교육문의** 042-601-4353(청소년 교육) 02-3459-2770(이러닝)
- **창의발명체험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2(가정동 33)

파란 도시 부산을 재조명한 세 문화마을

부산에 '문화마을'이라 불리는 동네가 세 곳 있다. 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화마을'과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영도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이다. 이 마을들은 6·25 전쟁 피란민들이 정착한 곳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그저 산동네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도시재생을 통해 마을 경관과 특성을 살린 관광 명소로 발전했다. 저마다 개성이 다른 세 마을을 답사하며, 피란민들의 생활상과 피란 도시 부산을 재조명해본다.

글·사진 _ 김혜영 여행작가

1

2

3

1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흰여울문화마을의 골목 풍경

2 감천문화마을 입구 축대 외벽에 전시된 물고기 모양의 작품

3 감천문화마을은 야경 촬영 장소로도 인기 있다.

부산 문화마을의 첫 단추 감천문화마을

부산은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다. 전국의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왔다. 부산은 평지가 적고 산지가 많은 지형이어서 갑자기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땅이 턱없이 부족했다. 피란민들은 임시정부청사가 세워진 광복동 일대 산기슭에 터전을 잡았다. 피란민들은 부두 노동자로, 시장 일꾼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산동네에 정착하게 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대표적인 마을이 '감천문화마을', '비석문화마을', '흰여울문화마을'이다. 이 마을들은 한국전쟁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문화마을로 가장 먼저 지정된 감천문화마을은 산비탈에 지어진 파스텔 색조의 계단식 주택과 미로 같은 골목 풍광이 이국적이어서 '한국의 마추픽추', '한국의 산토리니'라 불린다. 깍두기처럼 생긴 집들이 바다를 향해 층층이 늘어선 모습이 진기하다. 미로 같은 골목은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어도 막힘이 없다. 어느 길로든 통한다. 채광을 고려해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게 지어졌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사이에도 숨 쉴만한 골목길은 있다. 이곳만의 독특한 정취에 설치미술작품이 더해져 '감천문화마을'이라는 대규모 체험 미술관이 탄생했다. 길가, 건물 담벼락, 지붕 곳곳에 전시된 미술작품을 볼 수 있다. 주민이 살았던 옹색한 집의 뼈대를 그대로 살려 사진갤러리, 공방, 카페, 식당, 게스트하우스, 마을 안내소 등으로 사용한다. 감천문화마을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마을 안내소 옥상 하늘마루전망대에 오르면 감천동 반달고개 산비탈에 다랑논처럼 펼쳐진 감천문화마을 전경과 부산항, 감천항, 용두산이 한눈에 보인다.

주소 부산 사하구 감내2로 203 **안내센터 문의** 051-204-1444

무덤 위에 지은 집 아미비석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입구에서 까치고개 쪽으로 5분 정도 걸으면, '비석문화마을'이 보인다. '비석골' 또는 '무덤골'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약 100여 년 전에 조성된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다. 6·25전쟁 때 부산으로 온 피란민 중에 먼저 도착한 이들은 감천마을에 정착하고, 감천마을에 집터가 부족해 밀려난 이들은 고개 넘어 이곳 비석골에 자리 잡았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피란민들에게는 무덤을 겁낼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마땅한 건축자재가 없던 시절이라 피란민들은 묘지의 경계석과 외곽 벽을 집의 축대로 삼고, 천막을 덮고 살았다. 돈을 좀 벌면 집에 박스와 판자를 덧대고, 더 벌면 시멘트를 발라 집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그래도 집 면적은 딱 무덤 하나 크기였다. 식구가 늘어도 집을 넓히지 못해 위로 증축했다. 무덤의 비석과 상석은 문지방, 담장, 마을 계단을 짓는 데 사용했다. 마을 입구에 보존 중인 '하꼬방(상자 같은 집)'은 묘지 위에 지은 집의 원형을 잘 보여준다.

지금의 비석마을은 집을 새로 지은 가구가 많아 남아 있는 비석이 적다. 골목 바닥, 담장 아래, 축대, 가스통이나 쓰레기통 받침대를 잘 살펴봐야 상석과 비석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 골목 안에 그려 놓은 벽화에 가려져 있기도 하다. 어떤 비석은 아이들의 탁본 체험에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하꼬방 뒤쪽 서너 채가 비석마을 주민의 생활사를 재현한 박물관으로 꾸며졌다. 몸을 접어야 들락거릴 수 있을 만큼 작은 마을 박물관이다.

비석마을 지하에는 아직 유골이 묻혀 있다고 한다.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존하는, 유례없는 비석마을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암울했던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

주소 부산 서구 아미로 49
안내센터 문의 051-240-4496

4 비석문화마을에서 아이들이 비석 탁본 체험을 하고 있다.
5 비석문화마을 축대에 사용된 비석과 상석들
6 비석문화마을의 주택을 고쳐 지은 피란생활박물관

7 흰여울문화마을의 영화 변호인 촬영지가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다.
8 피란생활박물관에서 50~60년대 피란민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영화 '변호인'의 그곳 흰여울문화마을

부산에 뒤늦게 피란 와 비석골에서 마저 밀려난 피란민들은 영도다리를 건너 영도에 정착했다. 영도는 피란민에게 최후의 보루였다. 오갈 데 없는 피란민을 마지막으로 품어준 어머니 같은 곳이라고나 할까. 영도에서도 피란민이 많이 정착했던 곳이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이다.

감천문화마을이나 비석문화마을처럼 비좁은 골목에 지붕 낮은 집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두 마을과 다른 점이라면 바닷가 절벽 위에 자리해 바다 전망이 뛰어나다는 것. 마을 꼭대기의 흰여울전망대에 오르면 선박들의 해상 주차장인 묘박지(정박지)가 훤히 보인다. 바다에 크고 작은 선박들이 섬처럼 점점이 떠 있는 풍경이 이색적이다. 당시 피란민에게는 이곳 지형이 태풍이 불 때마다 판잣집이 날아가는, 몹쓸 곳이었으리라.

흰여울문화마을이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는 영화 '변호인' 덕이다. 이후 '범죄와의 전쟁', '영도다리를 건너다' 등도 이곳에서 촬영했다. 영화 흥행에 힘입어 방문객이 하나둘 늘면서 어느새 부산 핫플레이스가 됐다. 카페, 서점, 소품숍 등 주택을 고친 상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포토존마다 대기줄이 길다. 피란민의 시선으로 본다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을 것이다.

주소 부산 영도구 흰여울길 379
안내센터 문의 051-419-4067

모두가 완성을 경험하는 미술 수업

글·사진 _ 김보법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날이 드물다.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긴커녕 제시간에 수업을 마치는 것조차 힘들다. 주지 교과에서는 이런 경우 '수업 설계'에 오류가 있다며 반성하기 마련이지만 유난히 미술 수업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자신에게 관대하다. 미술 수업이 잘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수업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미술 수업 설계에 고려될 요소들은 무수히 많지만, 이 글에서는 '과업'과 '비계설정'만 다루려 한다.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미술 수업은 학생들에게 과한 과업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임무 하나에 에너지를 몰아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계설정'이다. 주제와 거리가 먼 기술이 수업에 필요 없다면 아이디어(발상)에 확실한 도움을 주는 비계설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이고, 모든 아이가 '완성'을 경험하게 하는 마법이다.

비계(scaffolding)

비계란 원래 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다음 층을 올리기 위해 설치하는 발판이나 시설을 의미한다. 교육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준과 단계에 맞추어 제공하는 지원을 비계라고 한다. 비계설정이 이뤄진 수업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교실혁명' 코너에서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소개해도 좋고, 수업 분투기도 환영합니다. 초임 교사 시절의 웃지 못할 '망한 수업' 사례도 좋아요. 교단일기처럼 자유로운 수필 형식도 OK! 2,000자 내외 분량의 글을 eduzine21@gmail.com로 보내주세요.

"미술에서 완성의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 이 경험은 성공과도 같다. 계속 맛보는 완성과 성공은 곧 성취감으로 이어진다."

수업 하나, 동물 타이포그래피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 활동들을 살펴보면 '글자'에 대한 활동들이 꽤 있다. 그중 하나인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글자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하고 싶은데 무작정 던져주자니 글자 주변을 예쁘게 꾸미기만 할 것 같았다. 초등학생 수준에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수업을 완성도 있게 하려면 어디에 비계를 설정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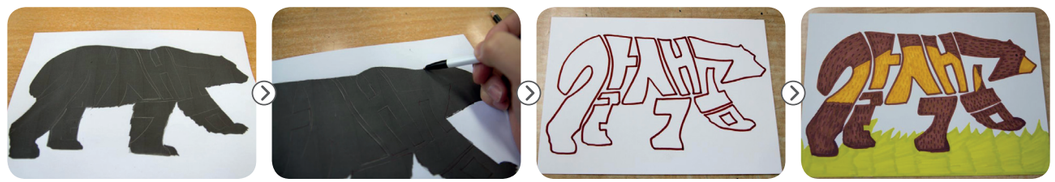
동물 타이포그래피	
비계	동물 테두리 도안, 도화지 크기, 채색 도구
집중	- 어떤 글자를 넣을까? - 글자를 어떻게 변형할까?
단계	1. 동물과 어울리는 단어 생각하기 2. 동물 테두리 안에 글자 변형하여 넣기 3. 글자만 도화지에 옮기기 4. 굵은 테두리 선을 그리고 유성마카로 채색하기

1. 가까운 곳에서 소재 찾기

이번 미술 시간에 할 활동은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작해야 한다. 글자를 이미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한 그림 실력은 필요 없다.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것인가만 정해지면 된다. 이미지를 정해주는 것이 비계가 될 것이다.

학생에게 친숙한 소재를 이미지로 사용한다. 바로 동물이다. 소재를 동물로 정했을 때 발상은 1분 만에 끝낼 수 있다. 생김새, 울음소리, 이름, 경험과 같은 모든 정보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대단해 보이는 소재는 부담감만 줄 뿐이다. 가볍게 생각할수록 시작은 재미있다.

2. 오직 타이포그래피만 남기기



동물을 소재로 한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계획하려고 하니 동물을 그리는 것 자체가 큰 미션이 된다. 명심하자. 수업의 핵심은 '타이포그래피'이다. 동물을 그리는 것보다 그것에 맞게 글자를 변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다면 동물 그림은 당연히 비계로 설정해버리면 된다. 동물을 그릴 필요가 없게 동물 테두리 그림을 인쇄하여 준비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테두리 그림을 고르면 자리에 앉아서 바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단 한 가지다.

"테두리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당겨 형태를 살려줍니다."

교사가 틈틈이 확인하고 조금만 수정해주면 교실에 있는 거의 모든 아이가 글자를 변형하는 것에 성공한다. 동물 테두리는 빼고 변형한 글자만 도화지로 옮기면 채색 단계만 남는다. 미술 기능과 실력에 상관없이 타이포그래피를 해낸다. 그것도 엄청나게 빨리.

3. 누구나 다룰 수 있는 도구

실컷 잘 그린 스케치를 채색 단계에서 망치는 방법은 아주 쉽다.

"원하는 채색 도구를 선택하세요."

대다수 초등학생은 물감으로 미세한 작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 색연필은 아무리 칠해도 어떻게든 도화지의 하얀 부분이 보이고 칠할수록 얼룩덜룩해진다. 글자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유성마카를 꺼내면 된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어진다. 유성마카를 이용해 글자 안을 가득 채워도 되고, 원한다면 무늬를 넣을 수도 있다. 물을 쓰지 않으니 깔끔하고 손이 가는 대로 선이 나오니 원하는 대로 꼼꼼하게 칠할 수 있다. 작품에 맞는 채색 도구의 비계설정은 작품의 완성도와 성공률을 높인다.

평소 미술을 잘하는 아이가 아님에도 수업 목표에 도달한다. 수업 목표는 '타이포그래피'였고 글자 변형을 잘하면 되는 것이다. 교사가 글자 변형을 제외한 모든 것에 비계를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온전하게 타이포그래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이포그래피는 비계설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업이다.

완성해야 비로소 미술이다

여백의 미. 미완성의 미학.

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다. 초등학교 미술 수업에서는 여백과 미완성은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싶다. 문장을 마칠 때 마침표를 찍듯이 미술 작품을 만들 때는 꼭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미술 시간만큼은 완성이 어렵다. 왜 그런지 몇 년을 고민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던진 걸까. 요즘 학생들이 미술을 못하는 걸까. 아니었다. 문제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었다.

미술 수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 잘 그리면 되는 줄 알았고, 멋진 작품을 뽑아내야 잘한 미술 수업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미술 수업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미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 몇몇 친구들이 어차피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번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보면 역시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날 교사인 내가 미술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수업을 시작했었다.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수업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하게 했다. 그것도 단 2차시 안에 완성까지 요구했다. 내 수업을 돌아본 그 날부터 미술 수업을 다시 설계했다.

"오늘 수업의 목적은?"

"완성을 위해 설정해야 하는 비계는?"

곳곳에 설정한 비계 덕분에 학생들은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드디어 오늘 자신이 어떤 미술을 배웠는지 쉽게 대답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비계'덕분이다.

미술에서 완성의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 이 경험은 성공과도 같다. 계속 맛보는 완성과 성공은 곧 성취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서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기술과 수준 높은 작품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 다했어요! 잘했죠?"라며 뿌듯하게 자기 작품을 칠판에 붙이고 들어가는 미술 수업이 학교를 가득 채우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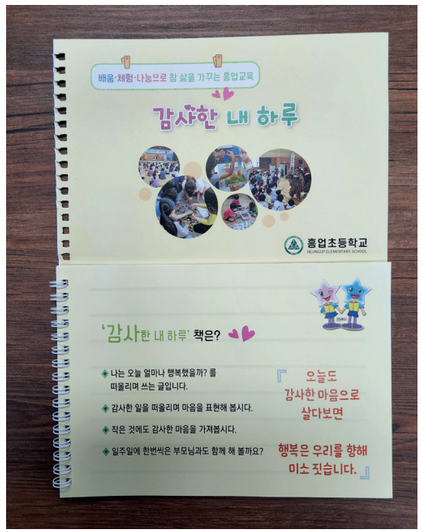
미술교육연구회 '하다(HADA)'

2018년 4월, 미술교육을 사랑하는 선생님 스무 명과 모여 미술교육연구회 '하다(HADA)'를 만들었다. '하다(HADA)'는 '하얀 도화지를 가득 물들이다'라는 뜻으로, 미술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양한 경험과 기억으로 물들이는 데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뜻을 담았다.

하다는 '미술'교육연구회이니만큼 당연히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미술'교육'연구회이므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림을 그린다. 교사가 수업에 앞서 작품을 먼저 그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당 수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재료를 찾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비계를 설정할 수 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닌 여럿의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혼자 미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라면 표현의 다양성을 접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다는 교육전문감성웹진 '에듀콜라' 누리집에서 연구회원들이 연구한 미술 수업을 글과 사진으로 연재하여 나누고 있다.

혼자보기 아까워서

선우효경 강원 흥업초등학교 교사



감사한 내 하루

흥업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감사 글쓰기 실천을 통해 감사하는 습관과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김민중 대구서재초등학교 교사

온몸으로 배우는 영어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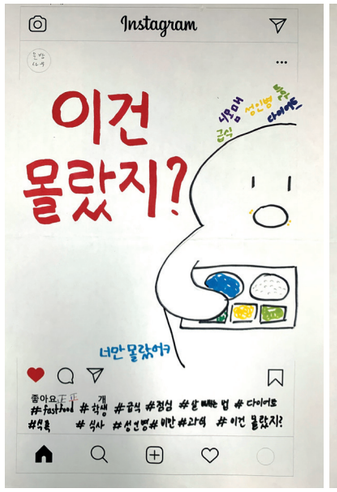
신발 멀리 차기는 영어로 'Wellie Wanging'이랍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신호에 맞춰 조금이라도 이기려고 신발을 냅다 멀리 차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정말 승부욕 하나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영어도 몸으로 배우니 더 재미있고 머리에도 쏙쏙 들어옵니다. 뭐든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몸이 기억하는 게 실력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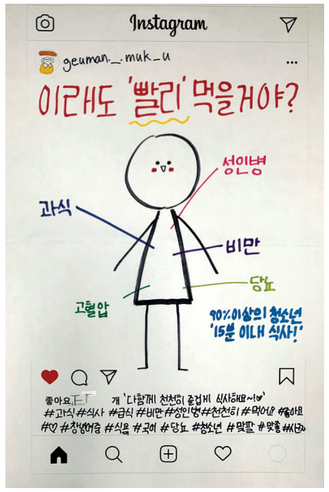
김숙연 대구 서변중학교 교사

코로나19 일상을 담은 '나의 분지'

지난 6월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의 리더십 수업에서 코로나 시대 나를 둘러싼 일상을 분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천중학교 1학년 김규민 학생의 작품이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돋보여 소개합니다. 김규민 학생은 "코로나19가 내 삶을 둘러싼 모습을 검은색 클레이를 이용해 마치 새장처럼 표현했다. 다만,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주황색 하트로 표현하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완 명예기자





천천히 먹기 운동

학생과 직장인의 점심시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빨리 먹는다는 점이지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친구들과 놀기 위해', '숙제하기 위해', '습관이 되어서', '친구가 빨리 먹어서' 등등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 식사를 천천히 하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천천히 먹기 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만들어 학급에 공유한 후, 자신들 개인의 누리소통망서비스에도 올렸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니 다들 뿌듯해한답니다.

교육활동 중 완성된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혼자 보기 아까운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작품 완성도가 높아서, 혹은 재치있어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습니다! 학생들의 자작시, 그림 작품, 수행평가 결과물, 건축물, 스승의 날 아이들의 편지글, 학교 운동회 사진,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만화 컷과 웹툰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작품과 함께 작품에 담긴 짤막한 사연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eduzine21@gmail.com

FOCUS 01

한국어 교실로 오세요(Korean Class Warming)

글·사진 _ 김경민 명예기자

말레이시아 스세리 푸트리 중등학교(SM Sains Puteri)의 한국어 교실에서는 8월 8일과 9일 이틀간 교사와 교직원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집들이'가 있었다. 쿠알라룸프르(Kuala Lumpur)에 위치한 이 학교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학교로 건물이 매우 노후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교사(僑舍)의 누전 방지를 위하여 전선 공사를 지시하였고 올해 초부터 현재 교내 곳곳에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4월부터 전면 대면 수업은 시작되었지만, 수업은 거의 1~2주마다 도서관, 당일 수업 없는 빈 교실, 컴퓨터실 등으로 임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진행되었다.

다행히 한국어 교실은 완공 예정인 11월보다 시기가 앞당겨져 6월 19일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모든 짐을 옮기게 되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교실 수업이 거의 없었고 이후 천장 공사로 시멘트 등 공사 먼지가 많이 쌓여있었으며 교실 곳곳에는 도마뱀 배설물과 각종 벌레의 사체들이 가득했다. 쌓인 먼지를 닦고 바닥에 고여있는 빗물까지 닦은 후에야 제대로 수업이 가능해졌다. 교실을 다시 사용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실 집들이'를 준비하게 되었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한국의 학생들이 즐겨 먹는 간식을 맛보고 전통놀이 체험활동을 해보고자 했다.

교실에서 라볶이를 만들어 수업 시간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국문화를 체험했으며, 수업 사이 빈 시간에는 교사들이 맛볼 수 있게 하였다. 교사 중에는 '한국 사람은 매운 음식을 아주 잘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의 음식을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라볶이를 맛본 후에는 '한국 음식이 다 매운 것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두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도 처음 맛본 라볶이 맛을 신기해하고 마지막 남은 소스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먹을 정도로 좋아했다. "선생님, 깐띤(Canteen)에서 이거 만들어서 파세요."라고 하면서 여러 번 줄을 서서 먹고 또 먹으면서 "이게 점심이에요." 하면서 더 만들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윷놀이는 시간이 부족해 교사들에게 윷놀이 규칙을 알려주고 '윷가락 던지기'로 변형하여 활동했는데 어린이들처럼 재미있어 했다.

이 학교의 종교적 특성상 할랄(Halal)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찾고 식기를 준비하는 과정과 더운 교실에서 라볶이를 이틀 동안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었지만 처음 경험한 맛에 좋아하는 교사와 또 먹고 싶다고 욕심내는 학생의 모습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더 맛있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또, 시간 관계상 윷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는데 학기 말 시험을 마치고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시도해 볼 계획이다. 이렇게 한국어 교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준 교사와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른 문화 교류 활동을 더 찾아 함께 해보고자 한다.

※ 김경민 명예기자는 초등교원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음

1 라볶이를 만들고 있는 김경민 선생님(왼쪽)과 신기한 듯 바라보는 말레이시아 학생들

2 한국 음식을 체험 중인 선생님들

3 윷놀이 체험 중인 말레이시아 선생님들

4 라볶이를 먹는 학생들

FOCUS 02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을 제안합니다!

글 _ 곽우은 명예기자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년째인 대구 달서구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25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이 중 6건이 최종 선정되어 최근 달서구청에서 본선 발표대회가 열렸다.

본선에 진출한 6팀을 소개하자면 먼저 심미영(제일여상) 학생은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이는 청소년 기관과 노인기관이 협업하여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세대 공감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라온하제 팀(도원중 배재영, 이희성)은 '봉사활동 활성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청소년 봉사활동 후 횟수, 단계 등 기준을 마련하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봉사와 나눔의 보람을 느끼고 청소년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제안이다.

도제반 팀(대구보건고 서예람, 배수연)은 '자원 재활용을 통한 다양한 키트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해 생활용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탄소중립 키트를 개발해 지역의 청소년기관 등에 보급하자는 제안이다.

대진리더쉽멤버스 팀(대진중 김현영, 장태현, 조수민, 신경일)은 '생활문화체육 체험 부스'를 제안하였다. 다목적 체육관 내부에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부스(예. VR체험)를 설치하여 유아, 청소년, 성인 등이 다양한 스포츠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나비 팀(이현진, 상원고 김혜경)은 '청소년 안심 일자리 보석반지 마크사업'을 제안하였다.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와 근무지 실사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청소년 일자리 근무환경 우수기업을 선정(보석반지 마크 부착)하여 청소년 안심 일자리 홍보를 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도와조 팀(제일여상 정다원·우아인, 대구보건고 김채은)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수련 활동'을 제안하였다. 인터넷 없이 수련시설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캠프(예. 2박 3일)를 진행하여 인터넷, 스마트폰의 과다한 이용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본선 결과 최우수상은 나비 팀에게 돌아갔다. 오완석(체육청소년과) 주무관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세대"라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기성세대도 그들에게 더 관심과 지원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달서구는 청소년 친화 도시로 청소년들이 미래세대 리더로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접수된 다양한 제안 중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내년도 달서구 청소년참여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FOCUS 03 독립운동탐방길, '다시, 독립운동의 기억을 걷다'

글 _ 강현 명예기자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후손 및 역사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 독립운동길 순례단(고등학생 60명)이 4박 5일간 독립운동길 순례를 떠났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중국 방문이 어려워져 중단됐던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탐방 프로그램 대신에 이루어진 국내 탐방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인 임시정부에서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을 비롯한 경북지역 애국지사의 활동 탐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답사함으로써 애향심을 높이고, 독립운동 최다 유공자를 배출한 경북인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독립운동 탐방 프로그램, '다시, 독립운동의 기억을 걷다!'를 담당한 경북교육청 공현주(학생생활과) 과장은 "경북은 전국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순례를 통해 독립지사들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조국을 되찾고자 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경북의 학생들이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순례단은 첫째 날(25일)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신흥무관학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출정식 및 추풍령 급수탑과 독립운동기념관 탐방을, 셋째 날에는 올해 개관한 국립 임시정부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고, 넷째 날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통일 전망대에서 평화통일을 향한 마음을 다지며, 마지막 날에는 국립 현충원에서 석주 이상룡 선생 묘소를 참배하며 4박 5일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출정식 때에는 석주 이상룡 선생이 조국을 떠나며 남긴 시를 낭송해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학생들은 "만주 독립운동의 뿌리가 경북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가슴이 뜨거웠고, 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의 고된 삶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발표하였다.

교과서에는 없는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교육이 바로 독립운동길 순례단의 탐방 프로그램이 아닐까? 앞으로도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뜻깊은 탐방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독자마당

<행복한 교육>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웹진(http://happyedu.moe.go.kr) 의견보내기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김은경 님

<교육포커스>를 읽고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예정한 700km 고도에 도달하는 쾌거를 이뤘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국내 기업이 우주산업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누리호 성공으로 만족하기엔 앞선 우주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다. 이제 우리도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키워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하고 반복적인 발사 성공으로 국내 우주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우주산업 발전 관련 법·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장우익 님

<교육포커스>를 읽고

'누리호, 한국 우주 시대를 열다' 기사를 통해 이번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뛰어든 지 딱 한 세대 만에, 인공위성에 이어 독자 우주발사체 발사 역량을 갖게 되어 정말로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60여 년 전, 이 땅에서 우주를 꿈꾸고 로켓을 개발했던 이들의 못다 이뤘던 꿈과 노력이 함께 일궈낸 결실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누리호 연구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파이팅!

우도형 님

<일상의 쉼표>를 읽고

8월호 '공주 백제 역사의 정수,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읽고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에 비해 백제는 주목받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웠던 게 사실이다. 한때 백제문화가 융성해 일본에까지 전파되었음에도 찬란하고 화려했던 백제문화를 도외시한다면 우리 민족문화 일부만 보는 것이다. 비교적 소홀했던 백제 연구와 고찰이 앞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특히 공산성은 문주왕이 도읍을 한성에서 웅진(공주)으로 옮긴 뒤 지금의 사적 제12호가 됐다. 이후 도읍이 사비(부여)로 옮겨진 이후에도 공산성은 지역 거점이 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을 남겼다. 앞으로 삼국시대 백제와 고구려 문화에도 더 관심을 두고 연구하여 많은 사료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EVENT

힌트. p 39(이달의 교육소식)

○○○○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 윤리원칙'이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서의 ○○○○ 개발·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